

With터뷰

|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터뷰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인터뷰로 만난 사람들>

무장애플랫폼

공정옥 | 김수용 | 이승욱 | 이은자 | 임수혁

친환경차량

김수용 | 유준호 | 육성완

청년주거

조각래 | 김요한 | 조영태

햇빛발전 지역자산화

이형배 | 오용석

사회적모성애

김경애 | 신영철 | 한가영

미세먼지

김은영 | 김한민 | 채수현

사회진입기 청년들의 프로필 사진 지원: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이진욱 | 정송이 | 최범순

마을방송국 확산: 재난시기, 이웃을 잇는 마을방송 인프라 구축

김영숙 | 권현준 | 김상현 | 김은아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젝트: 청년 진로탐색 활동 지원 및 도농상생

김종명 | 서삼열 | 안지혜 | 정예림

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학교 밖 청소년 진로탐색지원

강근모 | 김상운 | 김도한 | 원동윤

재난이후 사회적 고용: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김미지 | 이성환 | 방지민 | 권준열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일러두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2020년 한해 동안 의제들의 실행을 위해
애써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모은 인터뷰집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작성해 주신 원고는 글의 흐름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With터뷰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여는 글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
발간에 붙여...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발굴에 참여하고, 민·관·공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행 주체들과 협업테이블을 구성하여 21개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는 21개 지역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과정들을 담고있어, 우리 지역사회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시도 및 성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씨앗이 되어 우리대구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큰 꽃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nterview*

우리시도 대구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혁신가의 삶

1. 혁신이 뭐라고.

한 30년 전 무렵이든가, 혁신이라는 익숙하지 않아 어색한 용어를 접한 듯합니다. 그때는 불꽃 같은 혁명의 시대임과 동시에 혁명이 어두운 역사의 뒤편길에 묻히는 시대였으니, 그저 혁명과 대치되는 정치적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 인가 귀동냥 한 적이 있으나, 미련하게도 여전히 미몽입니다. 겸양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스스로의 상태가 이렇진대, 혁신에 대한 어줍은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합니다. 어쨌든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삶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을 경우까지도 소중하다면, 혁신 또한 그러하리라 믿어 봅니다.

2. 혁신은 꽃길이 아니다.

혁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서로의 처지와 처한 환경이, 목표와 가치, 조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골치 아픈 이유입니다. 심지어, 일상의 수많은 혁신 담론은 혁신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공익, 마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청년, 협동 등 익숙한 단어들에 던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혁신조차도 성과지표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니, 혁신가의 하루하루가 뭐 그리 행복할까요.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낳을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혁신이란 말조차도 상투어가 될 수도 있으니, 누가 혁신을 하고자 할까요. 혁신은 가시밭길도 아니지만, 꽃길은 더 더욱 아닌 것이지요.

3. 즐길 수밖에.

혁신이 삶과 밀착 되어 있는 한, 작은 혁신조차도 밑바닥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혁신은 현장성이라는 꽃과 사람이라는 구체성을 잉태합니다. 혁신이 다양한 실험과 실패가 만든 행동전략인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혁신의 성공만 있고, 실패한 혁신은 이미 혁신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 한다면, 누가 도전 할까요? 물론, 혁신의 개념에는 더 나은 방법을 통한, 더 많은 수혜자를 만드는 실행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박근식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크게 영향을 받은 해였습니다. 사회 불균형, 급속한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여러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수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Tri-sector의 만남을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의제포럼 진행, ON택트 사회혁신컨퍼런스 개최 등 새로운 방식의 협업 논의를 실행하였고, 무엇보다 코로나 재해 극복을 위해 지역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도 다양한 가운데,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각자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매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한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크고 작은 성과들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구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갖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사회공헌부장 심은정

여는 글

1. 무장애플랫폼 _014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수용
(주)소리엔, 이승욱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은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수혁

2. 친환경차량 _030

대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김수용
한국가스공사, 유준호
함께장애인정책포럼, 육성완

3. 청년주거 _038

대구도시공사, 조각래
대구시 청년정책과, 김요한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조영태

4. 햇빛발전 지역자산화 _046

안심에너지협동조합, 이형배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5. 사회적모성애 _052

아가쏘잉협동조합, 김경애
아가쏘잉협동조합, 신영철
한국가스공사, 한가영

6. 미세먼지 _060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대구환경공단, 김한민
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단, 채수현

7. 사회진입기 청년들의 프로필 사진 지원: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_066

더컴퍼니씨 협동조합, 이진욱
한국장학재단, 정송이
영남대 지역협력센터, 최범순

8. 마을방송국 확산: 재난시기, 이웃을 잇는 마을방송 인프라 구축 _076

대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김영숙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권현준
성서공동체FM, 김상현
마을방송국, 김은아

9. 도시근교형 깎이어 프로젝트:

청년 진로탐색 활동 지원 및 도농상생 _086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김종명
경북관광두레협력센터, 서삼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안지혜
다로리 청년, 정예림

10. 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학교 밖 청소년 진로탐색지원 _096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근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상운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김도한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원동윤

11. **재난이후 사회적 고용: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_110

달구벌커먼그라운드, 김미지
달구벌커먼그라운드, 이성환
슬기로운 낙타, 방지민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권준열

12.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 방식 모색:**

온라인 협업테이블 _118

더컴퍼니씨 협동조합, 강은경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손정아

13.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회협약** _126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더커먼, 강경민
대구도시철도공사, 박서현
제로스테이, 전승현

14.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_136

홀라, 안진나

15. **안전사고 예방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축시설물 개선** _140

대구도시철도공사, 박진우

16.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유희 공간 활용 장애인 문학관 건립** _144

작곡가, 이종일

17. **지역소상공인 활동지원: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_148

한국가스공사, 유준호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동현

18. **사회혁신가 성장지원** _154

대구사회혁신가 네트워크, 이창건
대구청년센터, 노동욱
소이랩, 장종욱

19.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 대상 코로나블루 극복 심리상담 지원** _162

토닥토닥협동조합, 이영희
한국부동산원, 나윤성

20. **민간 유희공간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_170

대백프라자, 배경은
제로스테이, 전승현
아가쏘잉협동조합, 김경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권준열

21. **청년 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_178

어반스캐닝, 김한필
대구도시공사, 조각래
한국부동산원, 나윤성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터뷰



1

무장애플랫폼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수용
(주)소리엔, 이승욱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은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수혁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공정옥 센터장입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공익활동'이란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달리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공익활동은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해결했으면 하는 과제를 시민들 스스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보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회문제라고 하면 거창하거나 자신과는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내 문제가 곧 사회문제와 맞닿아 있듯이 내가 하는 공익활동이 문제해결을 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무장애플랫폼은 공익센터 사업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제로 실행되기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무장애플랫폼 의제는 2018년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사회혁신 실험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익센터가 지원하는 사회혁신실험실 공모사업은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가능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의제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장애플랫폼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의제라고 봅니다.

처음 제안은 앱 개발을 하시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해주셨고, 장애인단체가 이 의제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기간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게나 주요시설 등을 방문하면서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험 기간이 끝나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의제로 선정되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도 협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왕성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올해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우리는 교통약자들에게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할까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장애인을 쉽게 떠올리게 될 텐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통약자는 장애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어린아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 이들이 다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언젠가 교통약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사회가 젊고,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 만 살만한 세상이 된다면 미래는 너무 암울할 것 같습니다. 젊지 않더라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돈이 좀 없더라도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아닐까요. 앞서 제가 공익활동에 대한 의미를 잠시 설명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통약자'가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통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해 본다면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고, 좋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수용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과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김수용이라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오랜 시간 계속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4살 때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다 절단되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들과 친지들의 등에 업혀 등하교하고, 친구들에게 업혀 다니며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의족을 착용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하숙집에서 하숙하며 친구들의 도움으로 혼자 고등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초중고대학 모두 일반 학교를 졸업하였지요. 대학을 진학하면서부터 꿈을 접고 원하지 않는 공부와 취업으로 인한 고통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30에 취업을 하여 10년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와 같은 지금의 일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목발 그리고 수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Q. FLAT 앱을 사용해보셨나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앱이라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화장실이나 전동차(휠체어나 스쿠터)충전소를 검색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식당 중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없는 곳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들이 편리합니다. 장애인들이 길을 가다가 배터리를 충전하여야 할 때 가까운 충전소를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실을 갈 때, 음식점을

들어 가야 할 때 턱이나 계단이 있는 식당들이 너무 많은데 앱을 이용하면 전동차를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가기 편리합니다.

Q. 모두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시내버스(저상버스)와 관련된 필요한 노력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대구시의 경우 약 44%(2022년 50% 계획)에 육박하고 있지만 모든 시내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닌 관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저상버스를 골라 타야만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가 많이 정차하는 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한 번 타려고 하기까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류장 안내 표시판에 본인이 타고자 하는 저상버스가 도착하는지 보아야 하기에 표시판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여러 대 한꺼번에 들어올 때는 일정한 장소에 버스가 서는 것이 아니어서 타야 할 버스가 주차하는 곳까지 가는 시간에 이미 출발해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상버스에 타기 위해서는 버스가 정확하게 인도에 붙여서 문이 열리고 리프트를 작동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리프트가 고장 난 경우도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저와 같이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저상버스에 타기가 무척 힘들다는 점입니다. 전장이 전동휠체어에 비해 길어서 버스에 리프트를 이용해 오르더라도 정해진 전동휠체어 석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에 통로에 서서 가야만 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버스 이용객들이 많은 경우 전동스쿠터가 타기 힘든 입장입니다.

현재 많은 장애인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가 지하철과 지상철과 관련된 필요한 노력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다른 지역의 지하철에 비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화장실, 지하철을 탈 때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공간도 좁고 높낮이 차이도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좀 더 고려해 주신다면 지상철의(드물지만 지하철에도 있음) 경우 전동휠체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전동차가 탑승하는 자리가 좁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동스쿠터의 전장이 전동휠체어보다 많이 긴 편이라 지하철과 지상철을 타고 내릴 때 좁아서 불편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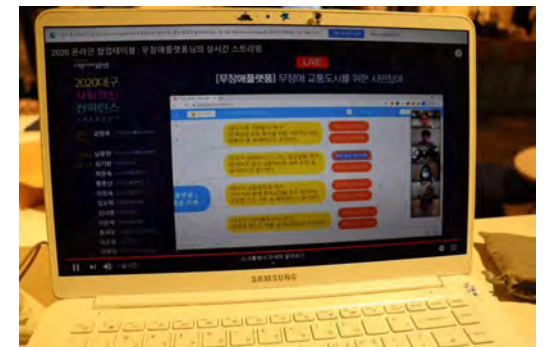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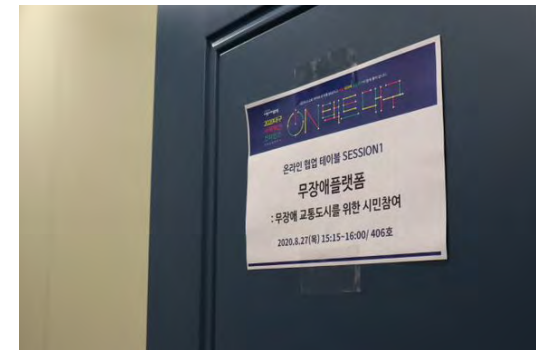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인 나드리콜에 대한 필요한 노력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군요. 대구 시내에서 움직일 때는 요즈음에는 대기 시간도 짧고(10분~1시간) 이동하기에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시 외곽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큰 불편이 따릅니다.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외곽 지역(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이지만)으로 이동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만 반대로 시 외곽(북구, 동구, 달성군)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차량 배차에 정말 오랜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1시간~3시간)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았더니 그럴만한 사정이 있더군요. 나드리콜 기사님들의 경우(타지역 장애인 콜택시는 대구와 다른 방식의 배차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음) 하루에 일정 회수 이상의 배차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파공산, 달성군, 철곡 등 시 외곽지역에서 콜을 부르면 그곳까지 빈 차로 들어가서 돌아오면 보통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야 하지만 단지 2건(2회차)으로만 인정을 하다 보니 기사님들이 꺼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욱이 기사님들 퇴근 시간이 임박하면 콜을 받기가 힘들시다고 하십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엔 콜하신 장애인분들의 거리에 상관없이 콜순서에 따라 배차를 하시더군요.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와 이용자 간의 거리가 25Km가 떨어져 있어도 그분의 순서가 되면 무조건 배차하십니다. 이용자분들이 자기의 순번이 돌아

올 때까지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구시의 경우엔(저의 3번의 경험) 앱으로 신청하면 신청자 대기 번호가 나옵니다. 150번임을 확인하고 점심때이기에 밥을 먹고 가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서 밥이 나오는 데까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차 알림이 왔습니다. 급히 포장해서 나드리콜을 타야만 했던 경우가 3번이나 됩니다. (평소 대기자 150명이면 점심시간에는 최소한 1시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근데 대구의 경우는 대기 순번과 상관없이 가까이 있으면 배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콜을 하고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려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지역을 다니는 기차에 대한 건의를 드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엔 대구에서 여러 지역으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전국으로 기차 여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버스나 자가용으로는 전동스쿠터를 싣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차에는 리프트와 전동차 탑승자리가 있어서 기차 여행을 자주 합니다. 전국에 가장 많이 다니는 기차 종류가 무궁화 열차인데요. 무궁화 열차가 모든 차량에 휠체어 좌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무궁화 열차의 경우 하루 4회 정도 운행하는 곳들이 많더군요. 출퇴근용으로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만 휠체어 석이 있고 경우도 있고 4회 중 2회만 전동차가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나머지 2회의 경우에는 차량엔 장애인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이용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는 분명한 차별입니다. 따라서 모든 무궁화 열차에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ith

(주)소리엔, 이승욱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벤처를 운영하는 (주)소리엔 대표 이승욱입니다. 현재는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문제점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일상에 필요한 무장애 편의시설 정보의 수집, 가공과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플랫(FLAT)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Q. 소리엔에서 플랫 FLAT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뛰어나진 않지만, 보유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능기부 방법과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을 했었고, 이동에 불편함을 크게 겪었던 일시적 교통약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을 위한 설문과 자문에 도움을 주던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모사업인 '사회혁신실험실'에 참여하면서 개발뿐만 아니라 활동가 결합, 관계기관의 참여 및 관심 등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Q. 플랫FLAT을 사용했던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플랫(FLAT)은 정보의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주로 정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께서는 몰라서 활용할 수 없었던 시설과 갈 수 없었던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장소와 정보를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 곳곳에서 발견하시는 무장애 장소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터부

024

분들은 무심코 이용하던 턱과 계단이 누군가에는 얼마나 불편한 장벽이었는지 새삼 알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꾸준한 무장애 정보 제보와 서비스를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Q. 앞으로 기대하는 방향은 어떠한가요?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생각이며, 자원봉사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및 사회적 벤처 등과의 협업 및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With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은자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의 기본 가치와 개념은 변함이 없으나 사회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의 참여로 자원봉사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는 일련의 시민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국제대회', '포럼', '문화체육행사', '시민복지', '재난', 'SDG's' 등 다양한 키워드로 개인을 둘러싼 사회 속의 어떤 주제와도 결합할 수 있는 매력이 자원봉사활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원봉사활동을 추구하는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은자 사무국장입니다.

Q. 온라인자원봉사를 연계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안내해주세요!

1. 무장애 플랫폼

025

생활 속에서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했습니다. 요즘은 갑자기 여유시간이 생겨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스팟자원봉사, 스피드매칭 등과 같은 온라인자원봉사, 재택자원봉사 등이 트렌드입니다.

특히, 무장애 도시인 대구의 생활복지 수준 향상에 맞춰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편리하게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복지에 대한 개념, 특히 이동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와 결합 할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Q.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생활과 관련된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쉬운 용어로 설명되고 개인의 생활과 관련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여러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때 참여 정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또한, 참여방법들을 세분화해서 개발하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무장애 도시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참여하기가 쉬워서 함께 개선해야 할 문제의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에게는 자원봉사교육을 연계하거나,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하도록 제안드리기도 하고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교육을 통해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활동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sh* 인터뷰

Wish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수혁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舊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회적가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수혁 선임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기관소개를 드리고 저의 업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원)은 데이터·네트워크 등 지능정보기술의 구축·활용을 통해 국가·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ICT 역사는 저희 지능정보원과 함께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능정보원 '15년 7월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대구 지역의 일원이 되었고,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에서 기관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활동이 과거에는 단지 사회공헌활동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혁신활동으로 발전하여 협업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지능정보원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진행한 의제는 '무장애(Barrier Free) 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데이터 구축 활동'으로,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휠체어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등록하여 '교통약자 편의시설 지도'를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1. 무장애 플랫폼

'19년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서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시민주도의 사회문제해결 협업 추진체계인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기관은 ICT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기획 중이었는데, '무장애 도시 조성' 의제가 데이터를 구축·개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의제 제안자였던 (주)소리엔의 이승욱 대표님과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활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대구 동성로(1차), 혁신도시 일대(2차), 동대구역(3차) 등 직원이 직접 대구 시내를 돌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약 400여 개의 데이터가 수집·등록되었으며, 혁신도시 일대(2차) 활동 시 뇌 연구원과 공동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른 기관에 활동을 확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공헌으로 진행했던 일련의 활동을 정리하여 내부에서는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대구시 주관의 "2019 대구 사회혁신 포럼"에 참석하여 활동 영상을 공유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정착시키고자, 기관 임직원이 일상 생활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19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20년도에는 대구시 자원봉사 유공기관으로 대구시장상을 받았습니다.

Q. 데이터 수집에 참여했던 분들의 소감은 어떠했나요?

활동했던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교통약자의 시선에서 이동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음식점, 카페들이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5cm의 턱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식사메뉴를 고를 때 내가 먹고 싶은 것, 동료가 먹고 싶은 것이 기준이

되지만, 장애인분들께겐 5cm의 턱의 유무가 메뉴 선정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동안 관심 가지지 못했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매장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된 매장도 다수 있었지만, 경사로가 없는 매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사로가 있어도 관리 부실로 인해 덜컹거리는 것도 있었고, 입구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설치 의미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휠체어 혹은 유모차의 폭보다 현저히 작은 경사로를 설치한 매장도 있었습니다. 교통약자가 이러한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Q.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위해 어떤 자원들이 연계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가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만나는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기관 간 협업, 시민과 협업,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보다 임팩트 있는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주체가 협업을 통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W



2

친환경차량

대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김수용
한국가스공사, 유준호
함께장애인정책포럼, 육성완

대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김수용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과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김수용이라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오랜 시간 계속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4살 때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다 절단되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들과 친지들의 등에 업혀 등하교하고, 친구들에게 업혀 다니며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의족을 착용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하숙집에서 하숙하며 친구들의 도움으로 혼자 고등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초중고대학 모두 일반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면서부터 꿈을 접고 원하지 않는 공부와 취업으로 인한 고통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30에 취업을 하여 10년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와 같은 지금의 일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목발 그리고 수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Q. 제 경험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에 실제 사회적 약자 승객이 탄 것을 본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보아 사회적 약자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교통약자인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여러 대가 한꺼번에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경우 대다수 이용자가 버스가 들어오면 시내버스가 정류한 곳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시내

버스가 정류한 곳까지 가기 위해선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는 턱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버스 리프트가 턱에 바로 붙여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기도 하고 버스를 찾아 도착하면 벌써 출발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정류장에서는 저상버스가 정차할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은 저상버스를 타기 힘듭니다. 전장(전동차의 길이)의 길이가 전동휠체어보다 많이 긴 편이라 리프트를 타고 버스에 오르면 장애인석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통로에 서서 이동해야 합니다. 버스 이용 승객이 많은 경우에는 버스에 오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는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동휠체어 석을 마련하기 위해 의자 한 개를 접는데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의자를 2개 접어야 합니다.

Q. 반대로 지하철은 비교적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지하철, 지상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대구 지하철의 경우 몇 년 전 1호선 전역에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높낮이 차가 심해서 경사로를 다 설치하였습니다. 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1호선 승강장을 자세히 보면 지하철이 정차하는 곳의 경사가 다르다는 것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이라 페이스북에서 타지 지하철 승강장의 턱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대구 지하철을 많이 자랑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하나 크게 자랑하고 싶은 곳이 서부정류장역(대구 1호선) 승강장입니다. 서부정류장역은 독특하게 곡선 구간 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 벽과 차량의 사이가 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 여러 차례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에서 건의한 결과 독특한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지하철이 역으로 들어와 정차하고 승강장 문이 열릴 때 곡선 부분의 벽에서 발판이 나와 벽과 차량 사이의 틈을 메꿉니다. 그 발판을 닫고 편안하게 승하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치 자량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아직도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지하철 공사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항의하는 문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사진을 찍어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With

한국가스공사, 유준호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사회공헌부 유준호 대리입니다. 20년도에 대구 본사로 내려와 사회공헌부에서 일하게 되면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회공헌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되면서 플랫폼과의 협업을 위한 여러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시민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 상생을 위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부에서 일하면서 플랫폼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Q. 현재 기관에서 친환경차량의제에 관한 진행 경과와 향후 방향이 궁금합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년 9월에 장애인 기관 공모 접수를 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

해 11월에 최종 2개의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용 가능 수혜대상자 수, 실 운영 현황, 장애인 직접 이용 여부 등의 심사를 통해 12월 말, 대구지역 장애인 기관(청각장애, 정신 지적장애) 2개소에 수소차 구매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대구지역 보조금 접수 기간이 연계하기 힘들어 보조금 지원을 통한 차량 증대는 못 하였지만, ‘21년도에는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가능한 대구지역 장애인시설 등에 친환경 차량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셔는데, 만약 건설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대구 혁신도시에 수소충전소를 건설 중이며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활성화 방안 등 지방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의 사업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수소충전소 건립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의 의무를 다하며 대구지역의 수소 경제를 이끄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친환경 사업이 발전되고 나아가 지역발전 및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With

함께장애인정책포럼, 육성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니 조금은 당황스럽네요. 오랫동안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활동가로 시작해서 실무, 사무국장, 단체대표를 거치면서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문제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정책수립 등의

회에는 조례 등을 만드는 작업을 해 오다가 지난 2014년 12월 단체 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외도를 좀 하다가 2018년에 함께 장애인 정책포럼을 만들어 지역 장애인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만들어 매년 한두 번씩 포럼을 열어 논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서 장애인의 문화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 운동을 한번 해 보고자 여러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기초계획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Q. 수소차량 보급을 위해서는 기존 차량의 대체를 넘어선 확대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소차량 보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만 아니라 전 시민적인 교통 에너지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불가피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친환경 차량 제공과 장애인 이동권 편의 증진사업의 실행은 몇 가지 의미에서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환경을 고려합니다. 둘째, 교통약자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셋째, 상생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미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구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나드리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특정 목적의 차량으로 공적인 모델을 비교적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 차량에 대한 충전시설 등 기본 인프라 확충해야 합니다. 장애인 교통수단의 기존물량 대체를 넘어선 “확대”로 이용자의 실제 편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차종 등에서 특장차(휠체어 이용자 탑승 가능 차량) 가능성 (단순 일반 택시 중심의 변경은 큰 효과를 볼 수 없음.)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대기시간 등 곤란을 겪고 있어 확대가 당장 필요한 차량은 오히려 휠체어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특장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환경 차량 도

입은 휠체어 장애인 이용이 높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선정기준을 특장차 기준으로 하고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W*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터뷰



3 청년주거

대구도시공사, 조각래
대구시 청년정책과, 김요한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조영태

With

대구도시공사, 조각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도시공사 기획조정실 혁신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조각래 과장입니다. 공사의 혁신계획수립 혁신과제관리, 혁신평가, 경영평가 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은 대구시 전역에 있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소득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공사에서 매입 후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며 만19~39세 이하 청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Q.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공사에서는 2020년 말 현재 대구시 전역에 225동 2,411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로 주택 150호 추가 매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자에게 원활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인터뷰

With

대구시 청년정책과, 김요한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이라는 공이 제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고무공인 줄 알았는데, 놓으면 깨지는 유리공인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살고 싶어서 운명으로 알고 이 길을 무거운 마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을 만들고, 청년들과 동행해온 시간은 제게는 너무 소중한 선물이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취업기회마저 상실하고, 스스로 ‘코로나 세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 외환위기로 취업절벽을 겪은 ‘IMF 세대’입니다. 그래도 대구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게 되면서 대구 청년으로서 살 게 되었고, 대구의 미래를 위해 신성장산업과 강소기업 육성 등 도시의 혁신을 위한 정책을 10년 이상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행운이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청년들과 더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가까이 있는 훈훈한 선배이자 힘겨울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Q. 대구시에서 대표적인 청년 지원 관련 사업 또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구시는 청년들을 위해 크게 두 가지의 큰 바퀴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만든 ‘대구형 청년보장제’입니다.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는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지점이 아니며, 청년의 삶의 모습은 단 하나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생애이행 단계별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3. 청년주거

설명은 청년 커뮤니티 포털 '줍프(dgjump.com)'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19로 청년의 삶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구시는 청년정책으로 청년상담 및 사회진입활동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퀴는 2019년 12월 19일 선포한 '청년희망공동체 대구'라는 사회적 협약입니다. 지역사회가 연대와 협업으로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지역사회와 청년이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며, 이의 실천입니다. 청년 정책을 마중물로 해서 청년의 삶 관점에서 공동체의 총체적인 효과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큰 바퀴를 마련하는데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조영태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년째 자취 생활 중인 조영태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2020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부상임위원장직과 생활환경인프라분과 분과장직 역할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대구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청년들에게 공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공간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공간이라도 어떻게 활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인터뷰

042



용하는지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공부하기 위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정보를 얻고 나누고자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즐겁게 놀기 위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공간이라는 글자 앞에 붙는 단어에 따라 공간의 의미는 크게 바뀌지만 유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청년은 '청년'이라는 한 묶음으로 포장하기 어려운 '다양성'이 존재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원하는 니즈가 다르며 복잡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에서 청년은 배움을, 문화활동을, 각종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에게 공간은 다양한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자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Q.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정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용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월세 지원정책이나 보증금 지원정책, 또는 간접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생활권과 가까운 임대주택공급확대, 부동산을 구할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육 제공, 주택정책이 한곳에 아카이빙 되어있는 플랫폼 정책, 안전문제와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이나고 한다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겪는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단독주택 평균 전셋값은 99,064,000원에서 2020년 12월 기준 130,349,000원으로 31,285,000원이 올랐고 평균 월세는 526,000원에서 735,000원으로 209,000원이 올랐습니다. 그에 반해 최저시급은 6,030원

에서 8,590원으로 2,560원이 올랐는데요. 소득은 조금씩 오르고 물가와 주거비용은 급등하다 보니 먼저 주거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



4

햇빛발전 지역자산화

안심에너지협동조합, 이형배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안심에너지협동조합, 이형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을과자치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은 이형배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안심마을에 살면서 공동체 활동을 해 오고 마을 블로그 운영과 마을 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밖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주민주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지원하는 사업, 주민자치회 연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하는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역 자산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심마을에서는 주택협동조합 공터, 안심에너지협동조합등을 통해 안정적인 마을 공동체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지역자산화 햇빛발전 의제가 어떻게 고도화되기를 기대하시나요?

햇빛발전소는 지역 자산화에 있어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지역의 자산을 지역주민이 직접 소유-운영-관리함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지역 자산화라고 합니다. 도서관, 공원과 같은 지역의 공유공간, 돌봄서비스, 행정 사무위탁과 같은 지역의 공공서비스, 햇빛발전소, 공공의 토지와 같은 공유자산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자산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의 협동조합이 구립도서관, 공원, 공영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더욱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인터뷰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오용석입니다.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역화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개인적으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13번 기후변화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대응의 핵심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와 교통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해 시민들이 단순히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활동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해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주)대구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했습니다. 최근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안심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햇빛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지역자산화 의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햇빛발전소를 만들고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합니다. 전력판매수익은 주민들과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기금으로 조성하기도 합니다. 20년 이상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지역자산으로

4. 햇빛발전 지역자산화

오랜 기간 마을공동체 주민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아직 햇빛발전소를 잘 모르는 주민들도 많고 알고 있더라도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햇빛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왜 필요한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햇빛발전소가 단순히 환경을 살리는 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사실을 공유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W*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 인터뷰





5

사회적모성애

아가씨협동조합, 김경애
아가씨협동조합, 신영철
한국가스공사, 한가영

아가씨협동조합, 김경애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3년 미혼모시설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미혼모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아가씨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가진 엄마이자, 아가씨협의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가 누가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인식으로 서로 동반을 통해 사회적 모성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Q. 의제를 논의해 가면서 어떤 점들이 힘들었나요?

미혼모들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위해 하였던 9년간의 다양한 활동에도 자립의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엄마들의 말씀을 기대로 시작한 일이 배움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혼모의 미혼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떼어내고 우리들 모두의 ‘엄마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일이 가장 어려웠고, 우리가 만든 사회가 엄마처럼 품어 줄 수 있는 사회적 모성애가 근간이 되기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Q. 그 힘든 점들을 견디게 해주었던 보람되거나 즐거웠던 좋은 경험들도 있었나요?

과도에 휩쓸리듯 방랑하는 모습으로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엄마들을 바라보는 것이 참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회에 텃줄 하나 없이 바다의 부표처럼 나부끼던 엄마들이 돌아온 연어들처럼 아가씨협을 다시 찾는 엄마들이 많아질 때 부족하지만 한 곳에서 변함없이 엄마의 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쓰던 용품을 다른 엄마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킁킁대며 들고 오는 엄마들이 한 분 한 분 늘고 있습니다. 버릴지언정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생소했던 엄마들이 다른 엄마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무척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그만 비닐 팩에 사탕과 초콜릿을 한 주먹 들고 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엄마를 보며 저희 모두 몽클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 것을 하나라도 나누고자 하는 엄마들에게 ‘도나맘’을 명명해 드립니다. 저희 모두 도나맘으로서 경계 없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꿔 봅니다.

또, 처음으로 아이 돌봄을 맡기고, 자유로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 미혼모들이 자신들도 더 나이가 들어 여유가 생기면 꼭 베이비케어 활동을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고마워할 때 힘들게 걸어온 지난 시간이었지만,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Q.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모성애’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 각 구성원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혼모나 한 부모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 홀로 아이를 힘들게 키우는 엄마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를 어떻게 대접하는지에 따라 그 사회의 품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며, 다양한 엄마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커뮤니티의 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년 <엄마의 날>을 개최하여 사회적 모성애를 환기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가씨협동조합, 신영철



5. 사회적모성에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리리 공상으로 살아온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며 모심과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동반을 통해 사회적 모성애를 실천하는 아가씨협동조합에 손가락을 얹고 배움의 자세로 '우리들의 엄마들처럼'이란 마음가짐으로 엄마의 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 작은 품을 보태고 있습니다.

Q. 의제를 논의해 가면서 어떤 점들이 힘들었나요?

미혼모들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아가씨협동조합의 긴 시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만큼 사람들의 관계와 연결의 정서적 자립을 위한 활동이 중요함을 설득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문제가 누구도 모르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새삼스러운 것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경험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모성애를 설득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Q. 그 힘든 점들을 견디게 해주었던 보람되거나 즐거웠던 좋은 경험들도 있었나요?

사회적 모성에 의제에 참여한 분의 제안으로 지난해 11월 16일 <엄마의 날>을 개최 운영한 것입니다. 엄마로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의 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필요를 많은 사람에게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엄마들을 만나면서 모성애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움의 기회가 된 것이 가장 보람되고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Q.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모성애'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

각 구성원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타인과 연결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 가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우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통해 사회가 우리를 보살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사회적 모성애를 자리 잡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반을 통해 존재의 장을 넓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ith

한국가스공사, 한가영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사회공헌부 한가영 대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는 '16년도에 입사했고, '20년 2월 사회공헌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 복지 향상에 관심이 있어서 사회공헌부에 지원하게 되었고, '20년에는 코로나 긴급지원, 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사업, 새싹 맘(미혼모) 자립 지원사업 및 장난감도서관 사업, 행복 등지 사업, 글로벌 사회공헌사업 등을 검토·수행하였습니다.

Q. 의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의제 포럼에서 아가씨 김경애 대표님과 신영철 팀장님을 만나 뵈는 시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미혼모분들을 직접 만나 뵈지는 못했지만, 대표님과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미혼모분들의 자립 지원에는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 및 미혼모분들의 감사함을 대신 전해주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코로나 19로 일반 시민들도 힘들겠지만, 상대적으로 타격이 더 큰 미혼모분들을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 인터뷰

비롯한 취약계층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해봐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구사회복지협의회 김주영 대리님과 사업 관련해서 논의했던 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김주영 대리님이 복지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사업을 기획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미혼모분들께 어떤 일감을 연계해드릴지 같이 고민했던 시간도 보람찼습니다.

Q. 지난 콘퍼런스에서 사회적 모성에 의제 실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어떤 자원을 연계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매달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온누리 펀드'라는 성금을 조성하는데, 새싹 맘(미혼모) 자립 지원사업은 온누리 펀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년도 초에 사업을 기획하면서 신경을 쓴 점은 첫째로는 미혼모분들과 일반 엄마 간의 교류요소 확대, 둘째는 미혼모 일감연계 부분이었는데요. 아가씨와 협동조합과 대구사회복지협의회의 의견을 검토하여 주요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일감연계 부분은 모든 미혼모분이 직접 봉제에 참여해서 물품을 만드셔야 하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적절한 봉제 난이도와 적정 단가를 고려하여 페이스 타올 세트를 선택하였고, 일부는 취약계층에게 배포될 '코로나 19 위생 키트', 일부는 공사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또한, 대구사회혁신 콘퍼런스 기념품 에코백도 미혼모분들이 제작에 참여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W*

5. 사회적 모성에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터뷰



6 미세먼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대구환경공단, 김한민
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단, 채수현

With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사람과 자연이 지구에서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금 소비생활과는 다른 대안 생활을 찾아서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소비생활 속 문제를 느끼는 시민들과 함께 녹색 소비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Q. 미세먼지 의제를 해결하고자 다짐했던 계기가 있을까요?

2018년부터 봄과 겨울만 되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뉴스가 언론에서 다루어지며, 어느새 봄이 와도 마음껏 봄의 향기를 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마스크를 껴야 하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이걸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수치를 매일 확인하고, 공기청정기를 종일 켜놓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들, 환자들,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가 많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Q.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이 되는 도심 내 대기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해주세요.

대기오염의 원인 중 개인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교통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이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거의 매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도심 내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이 도로의 비산먼지입니다. 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종일 도로를 오가는 자가용부터 건설용 차량까지, 다양한 연료를 이용한 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과 타이어 분진 등이 공기 중에 계속 떠다니면서 도로 옆을 다니는 저희가 마시게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인터뷰

됩니다. 이렇게 떠다니는 먼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다가 하죠.

많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지 않으면 공기는 정체되고 우리는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진 미세먼지를 호흡 중에 계속 마시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적든 평상시에 시민들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또는 보행, 자전거를 이용하는 교통 문화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평상시 대기관리가 잘될 것입니다. 또 평상시 대기 관리가 잘 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이런 실천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실천이 저는 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With

대구환경공단, 김한민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환경공단 시민소통T/F팀에 근무하는 김한민입니다. 2021년 처음으로 소통업무 맡게 되어 많이 부족하지만, 대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공단은 대구시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이사장님 이하진 직원들이 유해성을 인지하고 공단 안전관리 계획 중 미세먼지에 대한 단계별 행동요령 수록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 미세먼지

Q. 대구환경공단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도로 재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분진흡입차 13대로, 13구간 40노선 총 2,664.2km를 연장했습니다. 출입 차량·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했습니다. 공공 대기배출시설(성서소각장) 조업률(조업시간) 등의 단축을 시행했습니다.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With

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단, 채수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채수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Q. 의제 실행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의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단 활동과 민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던 일이 의미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Q. 본인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도보,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와 관련한 시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W*



7

사회진입기 청년들의
프로필 사진 지원: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더킴퍼니씨 협동조합, 이진욱
한국장학재단, 정송이
영남대 지역협력센터, 최범순

With

더컴퍼니씨 협동조합, 이진욱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컴퍼니씨협동조합의 이진욱 팀장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군 복무기간 빼고 대구를 벗어나 본 적 없는 대구 토박이 청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공공·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인연이 닿아 2020년 한 해, 청년사진관 의제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전체 프로그램 기획과 강사 및 사진작가 섭외,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했습니다.

Q. 청년사진관에 참여했던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덕분에 재신청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청년사진관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요인은 청년들 입장에서 취업준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기획준비 미팅 때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던졌던 핵심질문이 ‘프로그램 수혜자인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였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나열하면 수없이도 많겠지요. 함께 일하는 청년인턴들의 대답을 참고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했습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 스펙을 쌓으며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취업준비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촬영에 최대 10만 원까지 발생 되는 이력서 사진 촬영비용을 지원하고, 더불어 촬영현장에서 취업에 도움 되는 강의까지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해보았습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인터뷰

하여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연계로 영남대학교 LINK+ 사업단 지역협력센터에서 예산지원과 참여자를 모집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1층 북카페를 제공해주었으며, 저희 더컴퍼니씨협동조합에서 모든 프로그램 기획과 강사진, 사진작가를 구성했습니다.

진행된 5번의 프로그램 중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회차는 공공기관 선(先) 입사자(멘토)와의 문답을 주고받은 시간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기회였던 만큼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빼곡히 메모해왔던 학생들의 열정이 기억에 남네요.

청년사진관 프로그램 언론 보도를 보고 KBS 한 프로그램에서 취재했는데 이처럼 청년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층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더욱 많은 청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With

한국장학재단, 정송이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미래혁신부 사회적가치 팀의 정송이입니다. 우리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이나 혹은 20대 초 중반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기관인데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통해서 누구나 공부하려는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 기회를 제공하고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기관에서 청년사진관 실행을 위해 연계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한국장학재단 직원들입니다. 멘토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7. 사회진입기 청년들의 포괄적 사진 지원: 청년사진관 오픈 내일

청년사진관 프로그램 중, 3차례 ‘공공기관 선 입사자와 네트워킹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장학재단 건물의 약 50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직원들의 북카페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인데요, 사실 우리 기관은 혁신도시에 위치하지 않고 동구 신암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은 좋지 않지만, 건물은 좀 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작은 공간을 내어주게 된 것은 저희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혁신을 위한 작은 감수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아이템을 통해서 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Q. 청년사진관 의제를 해결하고자 다짐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인 우리 재단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청년의 건강한 사회 진출을 돕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청년과 학부모, 그리고 내재하여 있는 잠재적인 고객들이 그러한 필요를 말씀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재단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형 기숙사나 취업연계장학금 사업은 취업과도 연계되어 있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새롭게 진행을 하려니, 기존의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한정적인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혼자 하지 않고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곳’과 협업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더컴퍼니씨협동조합, 영남대학교 지역협력센터, 대구시민센터, 동구청년센터 등의 기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봉사 문화체험을 지원하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생각들을 통해,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까지 포함한 지원으로 학자금지원 혹은 인계육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싶다는 큰바람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이후의 청년들’이라는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고,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Q.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청년들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유튜브 교육 및 아르바이트 노무 상담, 창업 등의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과목과 교양수업 이외에도 더욱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분야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진관의 주요 참여 대상이 영남대학교 학생이었는데요. 학교가 경산에 있음에도 우리 기관이 있는 동구까지 와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필요로 했던 프로그램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제 설정 포럼에서 뵈었던 각 기관 담당자들을 통해 알게 된 것도 많습니다. 협업기관의 업무와 특성에 따라 학생과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주요 지원 대상인 학생, 청년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늘 그래왔듯이, 이 시대의 학생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기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With

영남대 지역협력센터, 최범순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 지역협력센터장 최범순 교수입니다. 영남대 지역협력센터(RCC)는 LINC+사업의 지역사회혁신파트를 교내외 교육과 지역사회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평소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원으로서 일본의 근현대 문학과 사회문화를 강의하던 사람이 '지역협력센터'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된 것은 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간 격차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안보입니다.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붕괴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지역에 정주하는 이유와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현실 속 유형의 요소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와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많은 흥미로운 문화적 요소와 활동이 넘친다면 그것이 행복과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지금-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확산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Q. 청년사진관 의제실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청년사진관의 의제'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자원일것지요. 그리고 순서를 따지자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

7. 사회진입기 청년들의 포로필 사진 지원: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발굴이 의제 실행 활성화를 위한 결정적인 자원-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 발굴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역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충분히 듣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청년사진관’이라는 틀을 활용해 본다면 <청년들의 자화상 같은 사진, 자신들의 내면을 찍어내는 사진>에서 시작해 <청년들이 찍어내는 사회 현실 사진(목소리)>을 ‘(사진) 백서’처럼 묶어내면서 <청년들이 바라고 꿈꾸는 청사진>도 함께 놓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 과정에서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고립되고 단절된 ‘나’와 연결될 수 있는 ‘우리’를 확인한다면 그다음 단계를 위해 연대의 싹이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평소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계신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청년사진관 외에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앞의 2번에 적은 내용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이전부터 모든 학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외롭다, 단절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지만, 코로나 19 상황을 1년 이상 거치면서 이러한 단절과 고립은 급속도로 확산한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는 경제적 어려움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인지 학생들이 ‘많이 지쳐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느낌이 맞는다면 우선은 외로움과 단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단절’에서 벗어나 다시 뽀뽀이 흠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과 협력’이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만큼 참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협력과 연대가 형성되면 코로나 19 상황, 혹은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삶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대응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년사진관 틀을 살린 공동 협력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을 구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W*



8

마을방송국 확산: 재난시기,
이웃을 잇는 마을방송
인프라 구축

대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김영숙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권현준
성서공동체FM, 김상현
대구마을방송국, 김은아

대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김영숙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김영숙입니다. 저는 원래 안심지역에서 마을활동가로 활동을 하다가 센터장 소명을 맡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고, 현장의 고민과 지역변화의 열망을 담아서 마을의 일상세계를 변화시키는 활동에 관심이 큼니다.

대구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곳곳에서 마을공동체 씨앗을 키우고 마을주민들이 삶의 공간에서 도시를 즐기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시 전체에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활동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마을 현장이 새로운 신뢰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을은 이제 마을복지, 마을교육, 마을미디어, 마을의료, 마을생태, 마을일자리 등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상상되고 혁신되어야 합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더 많은 주민이 지역혁신의 주체로 등장했다면 좋겠네요.

Q. 마을방송국 의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추진내용을 알려주세요.

마을방송국 의제는 대구 네 군데 지역에 마을방송국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 19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마을 미디어가 보여준 ‘재난으로 떨어진 이웃을 잇는’ 마을방송의 중요성과 의미가 크게 부각 되면서 대구 네 군데 지역에 마을방송국 만드는 일로 연결되었습니다. 현재 수성구 시지, 서구 비산2.3동, 동구 안심, 남구 대구시민센터 3층 이렇게 네 군데 공유공간을 활용해서 마을방송국이 구축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마을방송

국을 운영하고 방송을 제작할 마을주민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현재 네 군데 마을에서 마을 미디어 매니저가 선발되어 양성과정(총 27시간)이 진행 중이고 이어서 마을별로 방송제작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작되는 방송콘텐츠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과 채널을 통해 공유될 계획이고요. 앞으로 대구마을방송국 온라인플랫폼으로 들어오시면 대구 네 군데 지역 마을방송국의 방송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마을방송국은 그 어떤 의제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마을방송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의제인 것은 맞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들이 따로 필요하진 않았습다. 1인 미디어 시대, 수많은 정보가 넘쳐흐르는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이야기를 들을 매체는 없다는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이런 경험이 주민들이 마을 미디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마을방송국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마을방송국 의제팀이 하는 일은 주민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마을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일과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결국 방송콘텐츠는 마을 안에 다 있거든요. 저희 의제팀은 마을주민들이 맘껏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을방송국이라는 명석을 탄탄하게 까는 일을 할 뿐입니다.

With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권현준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권현준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상매체를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화나 영상 관련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관련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를 소개하고 함께 보는 일에 보람을 많이 느껴,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단편영화제에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누구나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문화시설입니다. 15년 전 즈음, 처음 이와 관련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서울에 있던 미디어센터를 통해 받았던 교육이다 보니, 긴 시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온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대구에서는 영상·영화와 관련한 지원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를 해소하고, 지역 영상·영화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Q. 마을방송국을 형성하기 위해 대구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대구영상미디어센터는 마을방송국 활성화를 위해 3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을미디어매니저 양성과정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1~2회 진행되며, 영상, 라디오, 활자 매체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 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터부

둘째로는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만들고자 하는 미디어 콘텐츠, 예를 들어 유튜브, 뉴스 등 영상 콘텐츠, 라디오 콘텐츠, 신문, 잡지, 웹진 등 활자 매체까지 다양한 마을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야 필요한 제작비, 제작 멘토링, 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미디어 교육, 콘텐츠 제작을 포함하여 워크숍 및 연구 활동, 행사 등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마을 미디어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마을방송국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마을 공동체와 주민들이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의 활동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With

성서공동체FM, 김상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공동체FM에서 방송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수로 작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그때 미디어가 갖는 확장성과 소통의 힘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재미있더라고요. 그 재미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Q. 시민들에게 마을방송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구나 매체를 가지는 1인 미디어 시대에 과연 마을방송국이 필요할까요? 개인이 미디어를 생산하고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미디어로 둘러

8. 마을방송국 확산: 계단사기, 이웃을 잇는 마을방송 인프라 구축

러싸여 있지만, 내가 사는 마을의 소식이나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관점과 철학으로 마을·공동체가 기록되고 소통되는 미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구가 집단 감염병의 두려움으로 잔뜩 움크리고 있던 작년 2월, 재난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행정과 정치가 다메우지 못하는 곳에 마을·공동체들이 자신의 온기로 채워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성서공동체FM (코로나 19 특별생방송)은 공동체의 위기를 공동체의 온기로 채우고 이웃과 모두의 안부를 묻는 마을·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해드렸었죠. 방송으로 고립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위안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재난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재난 회복력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개인과 마을의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점은 다른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주류미디어에서 소외되거나 왜곡된 정보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체가 되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마을·공동체의 대안적인 소통구조로 지역공동체를 건강한 방향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시민이 소유한 마을방송국,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앞으로 마을방송국이 어떻게 활성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까요?

개인의 욕구를 풀어내는 표현의 장이자 주민들 간의 관계망을 만들고 소통을 끌어내고, 미디어 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학습공간이 되기도 하고 문화와 예술이 모이는 곳.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가교로, 기록자로, 전파자로 그리고 마을의 공론장 그 자체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 방송국을 그려봅니다.

정말 많은 토론과 무수한 시행, 다양한 실험 시도를 통해서 마을·공

동체 방송국이 시민들의 대표성을 얻고 신뢰받는, 마을·공동체에 복무하는 미디어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조례제정같이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With

대구마을방송국, 김은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마을방송국 지원단에 팀장을 맡은 김은아라고 합니다.

Q. 마을방송국 의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마을방송국 의제는 대구 네 군데 지역에 마을방송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방송 장비를 구축하고, 방송국을 운영, 기획하는 마을 매니저를 양성하고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직접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송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들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네 군데의 마을방송국에서 만들어지는 과정과 성과들은 2월 말에 함께 공유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들 또한 역시 기록하여 인터뷰 연구 등을 통해 기록물로 남길 예정입니다.

Q. 마을방송국에 대한 고민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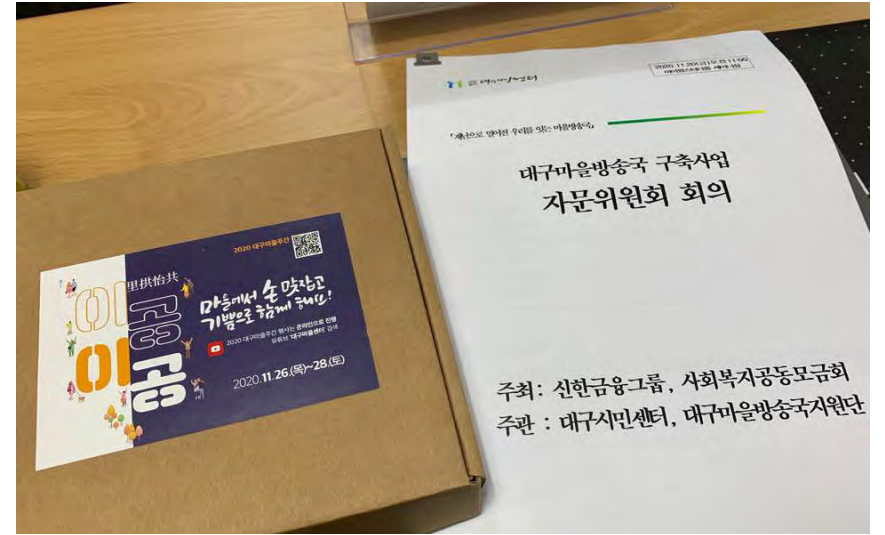
마을방송국에 관한 고민은 한 삼 년 전부터 꾸준히 대구지역에 있는 공동체 미디어네트워크와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가져왔던 의제입니다. 특히 올해 초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마을 미디어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풀뿌리 같은 다양한 역할들을 했어요. 지역 공동체 활동, 소식,

요구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올봄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 시정형 사업으로 공동체 미디어네트워크에서 이 사업을 대구시에 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곳에서 마을방송국을 구축하는 사업이 채택되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여러 방안을 찾아 보니 마침 대구에서 가장 심각했던 재난 상황 속에서 마을 미디어가 지역 소식들과 같은 풀뿌리들을 연결하여 플랫폼 역할을 한 것이 전국으로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에 많은 미디어도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한금융희망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하는 사업에 대구지역에 마을방송국을 구축하고 싶다는 제안서를 내어 채택되었고 감사하게도 네 군데에서 마을방송국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Q. 이 의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된 것 같아요. 마을방송국에 일단 장비가 구축되었고 그 마을방송국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끊임없이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줄 매니저를 저희가 양성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 거기서 끊기면 이벤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속해서 마을 미디어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이거나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미디어네트워크와 마을방송국에서 끊임없이 제안하고 움직이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계기로 마을방송국이 만들어지면 마을의 다른 우물터가 될 것 같아요. 마을 분들도 미디어에 익숙하시고 미디어라는 매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네 군데의 마을방송국이 또 다른 마을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W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이하)터부



9

도시근교형 깎이어 프로젝트:
청년 진로탐색 활동 지원 및
도농상생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김종명
경북관광두레협력센터, 서삼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안지혜
다로리 청년, 정예림

With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김종명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사무국장을 맡은 김종명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림부에서 집행하는 국비 사업으로써,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하고 그 지원으로 자립적,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개발사업 등으로 지원한 시설프로그램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커뮤니티 활성화, 역량배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주도형의 농촌혁신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도 지역은 대구, 경산, 울산 등 근교 대도시와 인접한 도시 근교형 농업농촌으로서의 새로운 모델로 도약하기 위해 청년 농부 및 지역의 청년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Q. 왜 신활력프로젝트 사업 대상을 도시근교형 깎이어프로젝트로 선정하게 되었나요?

청도는 대구, 경산, 울산 등과 직접적 경계를 맞대고 있는 근교형 농촌입니다. 도시민들과 농촌주민들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청도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도시의 청년층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새로운 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깎이어프로젝트를 청도에서 함께 한다면 청도 지역의 청년 농부 및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경험 및 새로운 형태의 도농 교류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향후 도시근교형 깎이어프로젝트가 실행된다면 신활력플러스사업 단에서 생각하는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향후 더 많은 논의 과정과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모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인터뷰

델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청사진이라면 도시의 청년과 농촌의 청년들이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체류형 근교형 농촌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도 청춘살이’라는 슬로건으로 사업 계획단계부터 도시와 농촌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경험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깎이어프로젝트가 청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안식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청도 시골살이를 통해서 스스로 힐링도 하고 그와 동시에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사회에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청도와 같은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With

경북관광두레협력센터, 서삼열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북관광두레협력센터에 소속되어 청도PD로 활동하고 있는 서삼열이라고 합니다.

Q. 도시근교형 깎이어 의제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대구 근교인 청도에서 청년들의 깎이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의제입니다.

Q. 깎이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며, 사람들에게 어떤 휴식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필요한 쉬는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일로부터 휴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 멎고 있는 관계로부터 혹은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또는 자신의 삶에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해 휴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먼

9. 도시근교형 깎이어 프로젝트: 청년 진로탐색 활동 지원 및 도농상생

저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알아서 식탁을 다 차려놓고, 준비되었으니 오시라 말하는 것보다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들의 필요에 대해 먼저 귀 기울이고, 그다음 목소리에 맞게끔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Q. 타지역에서 이미 여러 갭이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밍에 이미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근교형이 바로 그 차별점입니다. 대부분의 갭이어 프로그램들은 지역에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꽤 많은 자금이 투입되기도 하거든요. 이에 반해 도시근교형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무조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시 청년들의 삶의 반경을 농촌까지 넓혀주는 것입니다.

청도는 대구에서 자동차로 3-40분, 기차로는 3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차도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에 거주하며 청도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고, 청도에 거주하며 대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이겠지만 아침에는 청도의 감밭에서 일하고, 낮에는 대구 동성로 교보에서 책을 사고, 저녁에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희는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 청년들의 삶의 반경을, 바운더리를 청도까지 넓혀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직장이나 주거의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또 도시와 농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 둘을 하나의 삶의 터전으로 엮을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도시근교형 갭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지역과는 다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2021년에는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저희가 올해는 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네트워킹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에 참여하면서 준비 중이고요, 빠르면 여름쯤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그램 맛보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기지개를 켜며 시작하는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그램에 많은 지지와 참여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With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안지혜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85년생 안지혜입니다. 작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상으로는 청년의 나이(만 19~34세)를 안타깝게도 작년에 넘기게 되었지만,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상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만 10세에서 만 39세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대구에서는 저를 청년으로 소개해도 되겠죠? 저는 2년 전에 이직을 계기로 대구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고, 작년에 퇴사하여 현재는 나름대로 갭이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기를 이행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행기 청년들에게 나를 아는 것, 세상을 아는 것, 나는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 인가라는 질문은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학교와 취직 사이, 퇴사와 입사 사이의 기간, 즉 '갭이어'의 시간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민을 더욱더 깊어지고 구체화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청년 갭이어 이슈를 의제로 선정하고, 여러 주체와 함께 의제를 해결해가는 것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Q. 수많은 청년 중 한사람의 입장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썩어는 어떤 모습일까요?

청년이 새롭고 자유로운 도전을 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을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 제도권 내의 생활양식, 결과(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등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새로운 관점, 인생,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도전을 위해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인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갭이어 기간 적절한 수준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지배해왔던 제도, 혹은 라이프스타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방식의 라이프스타일로 일정 기간을 살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로웨이스트나 비건 등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적인 결과물보다 과정 자체를 결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매일의 생활을 일기나 브이로그 형식으로 남기는 것 자체를 중요한 미션으로 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With

다로리 청년, 정예림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올해 24살 정예림입니다. 작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터부

년 여름, 농림부 농촌 유희시설활용 사업에 선정된 서삼열 피디님을 알게 되었고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청도군 다로리에 소재한 옛 보건소에서 카페를 창업하고 그 공간에서 다양한 청년 사업을 기획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걸 좋아하는 보통 평범한 학생입니다.

Q. 청년들에게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갭이어’란 학업이나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진로 탐색, 인턴 등의 체험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처음 접할 때는 생소했지만, 피디님을 만나면서 모르고 있었던 갭이어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 맹목적인 경쟁과 학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 하니까요.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갭이어 제도를 국가적으로 권장하거나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와 자유 학년제도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2~30대에는 이미 무엇인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 나이대를 대상으로 한 갭이어 프로그램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괴테의 말처럼 인간은 노력하는 한 모두가 방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만약 내가 갭이어를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사실 청년들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가보다는, 원하는 걸 좇지 못하는 현실과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 소거하고 나면 누구든 맘속에 떠오르는 것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협한 사람은 타협한 대로,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대로 응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천천히 해도 괜찮다, 스스로 진실하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경험치가 필요할 뿐인 것 같

9.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젝트: 청년 진로탐색 활동 지원 및 도농상생

아요. 지금은 ‘방황’에도 그것만의 어떠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것만 같아서 맘 놓고 헛발질하기도 힘드니까요. 스펙에 도움이 될까? 자소서에만 줄 적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미뤄두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습니다. *W*



10

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학교 밖 청소년 진로탐색지원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근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상운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김도한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근모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근모입니다.

우리 기관은 다양한 경로로 배출되는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요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을 가지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격차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국사회에서 교육격차는 IMF 때부터 심각해졌던 소득 양극화로 인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전도되면서 부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계층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를 다루며 교육결과에 대한 격차를 다루었지만, 현재는 더욱 다양한 의미에서 교육격차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교육 소외를 교육격차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교육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잠재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소외 현상이 대두되었고,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소외 및 교육격차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공교육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Q.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학교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교육 소외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해당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공동체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연계하여 플랫폼이 주최하는 포럼에서 학교 밖 청소년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을 의제로 발의하여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협업기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의 미래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지원 및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도움을 받아 크리에이터, 코딩, 포토샵, 웹툰, 인터랙티브 AI 등의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직업가와 소셜벤처기업가의 특강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미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도전과 통찰의 확장을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현장에서 제작할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위두랑의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학교 밖 청소년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의 기초적인 형태이기에 이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실천공동체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모형을 만들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고자 대구광역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대구교육대학교,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위두랑 플랫폼을 제공하여 소통 및 공유채널을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시키고 있으며, 대구교육대학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요와 요구를 조사하여 학습 콘텐츠의 기본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문

제해결플랫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여러 기관과 협업하여 학교 밖 청소년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 실천공동체의 모형을 만들어 실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With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상운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사회적가치추진특임팀에서 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구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이며,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정보화전담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지난 10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교육 주제(크리에이터, 웹툰 등)로 구성된 진로체험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AI 기술을 활용한 융합 교육프로그램에 학교 밖 청소년을 초청하여 인공지능 기술(머신러닝) 이해 및 학습, 프로그래밍이 된 코드 활용 실습, 인터랙티브 AI 퍼포먼스 창작 및 발표로 구성된 융합형 체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즐기는 청소년들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기회가 부족했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여 이들이 자신 있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이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코로나19시대에서 앞으로 교육환경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코로나 19는 우리 행동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근무 형태와 근무공간의 유연화, 비대면 모임과 언택트 소비 행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코로나 19 종식 후에도 지속하는 뉴노멀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례 없는 전국단위 온라인 개학과 함께 학습 공간은 교실과 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되었고, 교사와 학생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콘텐츠, 도구를 활용하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생활상의 변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자기주도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 체제로 전환되면, 학생들은 안전한 온·오프라인 학습 공간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도구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선생님은 지식전달자에서 학습 촉진자 역할로 전환될 것입니다.

With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김도한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중인 김도한입니다. 우연히 접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보조활동과 청소년 멘토활동으로 청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들이 계기가 되어 청소년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금, 여기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 하고 실현하기위해 노력하는데도 생각처럼 안될 때 속상하지만 청소년들이 밝은 모습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청소년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 인터뷰

Q.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여러 기관들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의제를 실행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최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어느때 보다 여러기관과 함께 학교밖청소년을 이해하며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기관과의 만남을 거듭 할수록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의견 공유와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는 과정이 신선하고 학교밖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 어느 해 보다 즐거운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20년 한해 함께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모든 청소년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단한 네트워크가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With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원동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동윤입니다.

Q. 맡고 계신 의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재난 이후 정보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이 경험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제를 맡고 있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어떤 교육 격차가 발생했나요?

10. 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학교 밖 청소년 진로탐색지원

학교밖청소년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 정보 등의 부재 그리고 공교육 테두리 밖에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많은 교육 소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학교밖센터에 이 친구들의 위해 학업 지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특강이나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던 와중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여기서 한 번 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학교밖청소년들 사이에 교육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휴관 조치되면서 아이들이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 부분 상실되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은 보통 꿈드림센터, 지역 도서관, 가까운 카페 등을 활용해서 자습이나 스터디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지역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때도 안정적인 원격 플랫폼을 구축한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출결이라든지, 수업, 또래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창구들이 상당히 빠르게 마련이 되었지만, 출결 의무가 없는 학교밖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하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을 경험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Q.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과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구체적인 의제 실행을 위해 먼저 플랫폼 관련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두랑 플랫폼을 활용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위두랑 플랫폼은 선생님들, 교사가 학급을 개설해서 학생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인데요. 학교밖청소년 지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대구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위드

랑 플랫폼을 활용한 학교밖청소년 지원의 물꼬를 첫 번째로 댔고, 구글 센터 실무자 선생님들과 저희 시 센터 실무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활용 교육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 관련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같은 공공기관과 대구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와 같은 지역 대학 자원들을 활용해서 의제 실행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 ‘꿈을잇다’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이 꿈을잇다 프로그램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구지역에 있는 8개 교육센터, 실무자 선생님들과 학교밖청소년들 그리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함께 협업해 진행한 사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위두랑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이 플랫폼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행사가 되기도 했고요. 이틀 간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위두랑 플랫폼을 사용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코딩이라든지, 웹툰, 유튜브 크리에이터, 포토샵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 소외를 경험하지만, 의제 수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다양한 기관들의 노력으로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2021년에는 의제의 방향이 어떻게 잡혀 나가기를 기대하시나요?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 학교밖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정고시나 대학입시와 같은 학업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끼리 소통하고 홍보하면서 그 계기로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아이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를 나온다는 것, 꿈드림 센터의 문을 연다는 것이 상당히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 플랫폼이 꿈드림 센터에 처음 방문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의 두려움이나 망설임, 막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중심으로 대구지역에 있는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가스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지역에 있는 대학교 등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자원이 이 의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의제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센터와 지역의 공공기관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W*



11

재난이후 사회적 고용: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달구벌커먼그라운드, 김미지
달구벌커먼그라운드, 이성환
슬기로운 낙타, 방지민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권준열

달구벌커먼그라운드, 김미지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도시공사 기획조정실 김미지 대리입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근무한 지 4년 차, 기획조정실 근무는 1년 차입니다. 기획조정실 근무 전에는 보상판매처에서 아파트 분양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현재는 경영평가와 내부 성과평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기타 공사 내 제안업무, 회의, 유관기관과의 협력(달구벌커먼그라운드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의제실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고용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자원이 지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고용보험 재원의 지속적 확보, 둘째로는 조합원(프리랜서 등)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홍보를 위한 공공, 민간기업과의 유기적 협력체계입니다. 특히,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조합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과 함께 단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인터뷰

달구벌커먼그라운드, 이성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도시철도공사 기획조정처 예산성과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환 주임입니다. 2014년 공사에 입사하여 2020년 1월부터 예산성과부 우리 공사의 혁신(정부혁신, 사회혁신), 적극행정, 아이디어뱅크(제안, 학습동아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잠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20년 플랫폼에서 추진할 의제들을 선정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 혁신협의체인 달구벌커먼그라운드 13개 기관의 실무담당자로 참여하여 대구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각 소속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모아 공공기관이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의체의 사회적경제분과 소속으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추진하는 청년프리랜서협동조합 설립 지원사업과 (사)커뮤니티와 경제와 함께 대구소셜클라우드펀딩대회에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동참하였습니다.

Q. 공공기관 협의체로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설립된 기관입니다. 비록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민간에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점은 민간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보다 민간 부분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이 됩니다.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다시 자원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기업, 사기업 구분 없이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의 기관이 가진

11. 제안이후 사회적 고용: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자원은 충분할 수 있으나 그 기관이 가진 경험과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은 다릅니다. 공공기관 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은 이 부분을 잘 매꿀 수 있는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에도 잠깐 밝혔듯이 협의체 개별 기관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결합하여 집합적 역량을 발휘한다면 그 어떤 지역의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With

슬기로운 낙타, 방지민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를 주 무대로 문화기획이나 독립출판과 같은 영역에서 다양한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는 방지민입니다.

Q.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함께하는 의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이라는 의제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한 곳에 소속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과 제도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19가 심각해지고 장기화가 진행되면서 법과 제도의 그늘에 계시는 분들이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인 현상이나 재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저희 의제입니다.

Q. 의제실행을 위해 사업고용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들었는데요, 사업고용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활동에서 가장 힘든 점 중 하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고용이 된 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프리랜서분들을 힘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게하고, 협동조합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함께해주는 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수주받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의논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어필하는 식으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모아서 덩어리가 더 큰 개개인의 조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사업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계기라기보다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리랜서 직원들 또 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고,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Q. 의제 진행에 대한 내년 기대사항이 있나요?

지금은 초기 단계로 함께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식의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화하는 것이 올해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작은 일부터 수주를 받고 같이 모인 조합원들과 수주받은 일 이외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With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권준열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의제실행팀을 맡고 있는 권준열입니다. 의제실행팀은 지역의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들을 의제로 공론

화하여 발굴·기획·실행·제도화를 합니다.

Q. 사업고용협동조합 의제를 실행하고자 다짐했던 계기가 있을까요?

2020년 2월부터 확산되어진 코로나19 재난을 지켜보면서 청년프리랜서의 불안정한 고용실태를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재난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코로나19 재난이 장기화 되자, 문화예술분야의 프리랜서들은 공연취소, 행사취소, 모임취소에 따른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들이 저에게는 큰 문제점이라 인식이 되었습니다.

프리랜서의 유동적인 고용형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정부지원에서도 사각지대로 놓이기 쉽고, 대응전략도 늦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목도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느끼게 되었고,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의제를 해결하고자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리랜서들에게 어떤 고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 활동에 따른 노무비용이 발생 할 시 사업장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시행합니다. 이에 본 협동조합은 용역 계약한 프리랜서들과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따른 비용(고용보험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본 협동조합은 청년 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에서는 프리랜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기관·민간·지자체 등 다양한 영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 체결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협동조합에서는 프리랜서의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분야별 교육지원, 자체 콘텐츠 개발 지원, 원데이클래스 개설 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인터뷰



11. 재난이후 사회적 고용: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Q. 행정적인 절차도 매우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본 협동조합은 코로나19시대에 발맞춘 대안적인 모델로 실험하기에 국내 사례가 아닌, 외국 사례를 기초로 기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대구지역에 맞는 추진체계 구축, 프리랜서 대상자 선정, 협동조합의 역할, 핵심사업 선정, 협동조합과 프리랜서와 협업 등 모든 영역에서 선구적으로 기획하고 체계를 세워갔습니다.

선구적인 사례이기에 행정적인 절차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는 초기부터 함께 한 추진위원단이 협업하면서 준비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설립초기 구성된 협동조합 추진위원단(공공기관, 지자체, 청년센터, 프리랜서, 대구지역 전문가 등)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의제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다양한 주체가 마음을 다해 협업함으로써 풀어간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W



12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 방식 모색:
온라인 협업테이블

더컴퍼니씨 협동조합, 강은경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손정아

더컴퍼니씨 협동조합. 강은경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컴퍼니씨협동조합의 강은경 대표라고 합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공공·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인연이 닿아 2020년 한 해, 의제실행·역량강화 워크숍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Q. 온라인 행사&회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써서 준비했던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작년 한 해,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다양한 온라인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대면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원활한 소통’을 가장 많이 신경 썼습니다. 더불어 오프라인 장소 세팅도 ‘안전’을 염두에 두며 세밀히 준비했습니다. 온라인(비대면) 행사 자체가 매우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을 경우 소통에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번의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1차로 행사 장소를 답사해 ‘인터넷 속도’를 확인하고 2차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과 리허설을 진행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적정인원’을 설정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이 병행되는 워크숍이다 보니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 적절한 인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한 해의 경험, 함께 준비하는 기업과의 조율을 토대로 인원을 조율했습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터부

Q.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사전 준비는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행사에 대한 논의는 2달 정도 전에 시작했고, 실제 준비는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어떠한 의제들을 다룰지 먼저 결정하고, 그 의제에 참여할 대상자들을 선정해 실제 행사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역량강화 워크숍은 많은 공공기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개별의제에 대한 참여자들 간 이해나 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워크숍방식’에 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참여자가 의제 실행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까?’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과 다양한 의견·고민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제 진행 상황과 참여자들에 관한 이해가 점차 높아졌고, 수차례 오가는 의견 속에 적절한 워크숍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워크숍방식에 잘 적응해주시고 유의미한 의견들을 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Q. 현장에서 소통을 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기술적인 준비를 잘 마쳤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각 의제의 퍼실리테이션을 담당해주셔서 소통 안정성도 꽤 높았고요. 참여해주신 공공기관, 이해관계자분들은 각 기관에서나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의 협력에서 ‘비대면’ 행사 또는 회의 경험이 있으셔서, 오프라인 행사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관해 잘 양해 해주셨습니다.

다만, 온라인 행사가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경우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면 바로 답변이 오지 않기에 대기해야 할 때,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해야 할 때, 소통반응에 있어 상호 간 시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경우가 그럴 거 같습니다.

12.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 방식 모색: 온라인 참여테이블

앞으로 코로나 19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견 앞에 상호 간 '비대면 소통'도 점차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With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손정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민센터 지역문제해결플랫폼팀의 운영홍보팀에 있고 선임매니저로 있는 손정아라고 합니다.

Q. 오프라인 진행과 온라인 진행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참여자들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은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온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준비사항이나 안내사항이 너무 많고, 주최 측 자체도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나 온라인 행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온택트 행사가 많아졌는데, 앞으로 온택트로 소통하는 시대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이제는 오프라인 행사보다 온라인 행사가 좀 더 익숙해져 있고, 직장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온라인 시장이나 온라인 미팅과 관련한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발전한 시장 속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행사나 회의의 참여가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 북이나 교육들이 많이 생긴다면 쉽게 접근하고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행사나 회의가 많아지면서 그 시장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가 갑작스레 터지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사실 매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구상하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오프라인으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거나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연다거나 하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프라인 행사는 전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줌이라든지, 리모트미팅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의 의제별 포럼, 협업테이블 같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죠. 온라인으로 의제별 포럼, 협업테이블을 진행하다 보니 회의가 길어지면서 지루해하거나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마이크를 켜고 끄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죠. 근데 좀 익숙해지고 발생하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다 보니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이라고 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어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라든지 포럼을 진행하다 보니 직접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행사를 참여해서 댓글로, 채팅창으로 의견을 남기는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보통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면 손 들고 질문을 하는 게 어색해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발언을 하시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작년에 진행한 온택트 행사의 준비 과정, 규모 등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진행한 가장 큰 행사였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재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터부

12.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 방식 모색: 온라인 협업테이블

작년의 경우 콘퍼런스를 큰 장소를 빌려서 직접 모시고 했다면, 작년의 경우 콘퍼런스에서 발언하시는 분들만 소규모로 직접 오셔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장소 공간을 하나 빌려서 각방에 의제별로 나누어져서 들어가고 운영하는 운영국과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만지시는 분들을 다른 곳에서 모여서 시스템을 만지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신 분들은 8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50명 정도 모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동시에 병행하면서 처음이었지만, 나름의 노하우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내년 2021년, 의제와 관련해 어떤 것을 기대하시나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의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특화된 의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갑작스럽게 업무환경이라든지 회의, 행사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이 의제를 실행하면서 모은 자료와 정보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들을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것 자체가 좋은 성과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의제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라든지 학교박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지역과 직접적으로 더 맞아있는 의제를 고도화시키는 것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W*

13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회협약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커먼샵, 강경민
대구도시철도공사, 박서현
제로스테이, 전승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사람과 자연이 지구에서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금 소비생활과는 다른 대안 생활을 찾아서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느끼는 시민들과 함께 녹색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Q.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환경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식물, 나무, 동물 등과 같이 인간보다 훨씬 민감한 생물들은 아프거나 죽고 있죠. 이미 이 지구상의 32,000여 종의 생물이 위협을 받고 있고 지구의 양서류 41% 멸종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많은 수재민, 이재민이 발생했고, 어마한 면적의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콕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30년이면 국토의 40%가 잠길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올해도 홍수를 겪어 농사짓는 땅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상 이변은 식량부족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의 식량 부족 현상은 심각한 위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후진국, 즉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이런 피해는 극심한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극심한 가뭄, 홍수, 폭염, 폭염,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는 기후난민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의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인터뷰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지구 온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상 이변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준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Q.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어떠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기후위기가 온 것은 지구가 가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가열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탄소 발생을 줄이는 영역은 다양합니다.

먼저 에너지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도 해야 하지만,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에너지 생산, 즉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입니다. 대구녹색소비자연에서는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시민햇빛발전소를 세우는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물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수도물 음용률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생수 사용률이 높고 정수기 사용이 높습니다. 생수 사용은 플라스틱 발생 문제도 심각하며, 정수기도 수도물보다 1300배 이상 탄소 발생이 높습니다. 수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공재인 수도물 음용을 높이는 것이 탄소 발생을 줄이는 길입니다.

폐기물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비닐 등 일회용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많이 알고 계시죠? 대구녹색소비자연에서는 올해 제로웨이스트 지도2를 만들어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가게 20곳을 발굴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텀블러,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것 이외 가

13.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회철학

게에서 일회용 포장재, 빨대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훨씬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대구올레’ 앱을 통해 하루에 1만 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조금 먼 곳은 대중교통과 보행으로. 개인이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주 정도 매일 만 보를 걷는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프로그램도 참여하여 자가용이 아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With

더커먼, 강경민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더커먼을 운영하는 대표 강경민이라고 하고요. 더커먼은 크게 제로웨이스트샵과 비건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 워크숍과 강의 같은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회협약 의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의제에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대체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어요.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실천과 일회용품 사용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실천 그리고 육식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과 지역농산물 구매를 지지하는 실천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실천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

는 것과 그런 환경에 관심이 있는 정치와 정당에 투표하는 것 그리고 실천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에 물건을 구매를 통해 실천하는 것 또한 하나의 실천에 해당합니다. 시민들께서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여 실천 의제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Q. 더커먼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 대구가 대프리카로 유명한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여름의 폭염과 긴 장마를 겪으면서 기후위기를 피부로 와닿아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후위기보다는 동물권과 쓰레기 문제를 관련하여 더커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비건 음식을 소개하던가 로컬푸드를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일 큰 제로웨이스트샵 운영으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기후위기와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후위기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이 의제를 통한 내년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저희 더커먼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오면 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거나 저희가 관련 모임, 행사, 강연, 워크숍 등을 홍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를 통해 조금 더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가 오픈한지 반년이 채 안 된 상황이지만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 민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차를 한 잔 마시러 와서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잡지를 읽으면서 기후위기가 무엇이며 물 부족이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냥 맛집을 찾아왔을 뿐인데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반대로 제로웨이스트만 알고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게시판에 걸린 게시물들이나 음식을 통해 비

건이 좋은 이유와 기후위기와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한계점이 있지만, 내년에는 현재 몇 차례 진행한 녹색소비자연대와 같은 환경단체와 연합을 발전시켜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3.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회철아

With

대구도시철도공사, 박서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해서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예산성과부 박서현 대리입니다. 입사 후 여러 곳에서 근무하며 사내 CS 강사, 어린이 역사 견학, 역사 내 문화행사 활동, 어린이 및 노인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성과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민을 위해, 공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었다면, 지금부터는 3천여 명의 직원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이루어낸 성과들을 종합해 가공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Q.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기후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언젠가 도시철도 역사로 견학 온 여섯 살 어린이들에게 ‘아픈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져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큰 소리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해요’, ‘자가용 대신 지하철을 타야 해요’, ‘일회용품을 쓰면 안 돼요’ 등등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기특하게도 우리가 지구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기후위기극복 대응 중 하나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존재 자체가 기후위기극복을 위한 큰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공사는 대외적으로는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환경관리팀이라는 조직을 따로 두고 있기도 하며, 전사적으로

는 친환경 도시철도 운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친환경·녹색 제품 활용 및 구매 등의 노력을 평가하기도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전략목표 아래에서 친환경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전사적으로 전기에너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 중입니다. 실제 문양 차량기지와 칠곡 차량기지에서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너지 절약 생활화 운동 추진 등 대구도시철도공사 전 직원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기후위기극복은, 또 지구가 당면한 문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한 개인, 한 조직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구 도시철도공사와 직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과 개개인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후위기극복과 관련된 문제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더해질 때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With

제로스테이, 전승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 중인 전승현입니다. 소프넷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위한 판매와 열매와 어울리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게 되었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제로웨이스트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주거 밀집 지역에 자리를 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 인터뷰



Q.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제공할 제로웨이스트 제품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로웨이스트는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시지만 실제로 제품을 보다 보면 우선 내 몸에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내 몸에 무해한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를 알면 제품 선택이 쉽습니다.

Q.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환경을 위한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꼭 손님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평소 아껴 쓰고 다시 쓰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로웨이스트라는 매장에 오시는 분들께 어떤 곳인지 열심히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많은 분이 제로웨이스트샵의 존재를 알게 되는 날까지 큰 계획은 없습니다. *W*



14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홀라, 안진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문화기획단체인 홀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진나 이고요.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라는 공간을 책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같은 경우 북성로에 있는 유무형의 많은 자산이 있는데요. 특히 집약된 기술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수되어왔고 미래적인 자산 가치가 있는 무형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하여 문화적으로 풍부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Q. 북성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북성로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도부터였는데, 그때도 이미 북성로라는 곳은 굉장히 낙후되고 도심에서 소외되었다고 인지된 곳이었어요. 그래도 최근에는 꾸준히 북성로가 알려지면서 문화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어요. 또한, 리노베이션 사업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새로운 주체들이 동지를 틀고 기존 분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천천히 변해가는 재생의 속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풍성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들을 깡그리 삭제시키는 집단적인 블록 형태의 개발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소중하게 여겨진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흩어지는 상황이 매우 고민되었어요.

2017년도 즈음부터 해서 큰 면적 단위의 아파트 개발 사업들이 시작되면서 과연 도시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재생을 이야기하지만,

재개발과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서 정말로 지켜야 하는 공유자산을 시민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권리를 지켜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Q.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의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했으면 하시나요?

사실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의제 자체를 어떤 분들은 과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쉽게 문화유산이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유네스코였던 것 같고 실제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요. 그전에 앞서서 중요한 화두 하나를 두고서 북성로 내부에 있는 다양한 기술자분들과 새로운 동지를 틀고 있는 청년 혹은 새로운 문화적인 그룹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 다른 지역 친구들이 함께 북성로에 가치와 문화적 자산과 유산에 관해 이야기하고 답론하는 시초로 삼고 싶습니다. W



15

안전사고 예방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축시설물 개선

대구도시철도공사, 박진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도시철도공사 건축관리부에 근무하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Q. 의제가 안전사고 예방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축시설물 개선인 데요. 해당 의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 공사 건축 시설물이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인도나 교차로 쪽의 환기탑과 외부 출입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탑과 외부출입구가 높다 보니 차량과 인도에 지나다니는 사람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어떻게 하면 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건축시설물을 개량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도 내에 있는 환기탑 등 때문에 임대상가를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아무래도 상가를 가리니까 인지가 낮아지는 문제도 고민이 되어서 개량을 하면서 시야도 확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기준의 높이가 있어야만 되는 환기탑이라서 환기탑을 어떻게 하면 시야 확보와 개량을 할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Q. 해결 과정에서 시민참여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우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요청하여 시민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요. 환기탑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위치별 요청을 드렸고, 위치별로 선정된 것을 가지고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라고 있는데, 그곳에 의뢰해서 개선 순서를 정했습니다.

Q. 내년 2021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협력하면서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분야에 있다 보면 한정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 적절하게 비전문가분도 참여하셔서 같이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의제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기대되고, 2021년은 어떻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개량을 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 작게나마 임대상가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운영이 잘 되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사로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효과가 많이 난다면 향후 예산을 좀 더 유치해서 개량해야 할 시설물을 더 추진하는 게 목적입니다. W



16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유희 공간 활용
장애인 문학관 건립

작곡가, 이종일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종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글에 노래를 만들고 지역에 있는 소외된 약자들과 함께 말을 하게 하고, 그분들의 노래를 만들어드리 는 작곡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 문학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문학관이라고 명명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지역 문제해결플랫폼 선생님들께서 좋은 이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그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삶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하면서 자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자폐청소년, 뇌병변 장애인들과, 자폐 성인들, 정신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나 글 쓰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말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비장애인들은 주거도 자유롭지만,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 아무데나 가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문화센터라고 표현하면 외람될 수 있지만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 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시혜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복지라는 시설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회에서 직접 손잡고 협업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적 표현을 장애인들이 직접 소비하고 해설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글을 쓸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고, 시집을 만들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찾아오거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주

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꿈이 크겠지요. 그때 우연히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알게 되었고, 먼저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Q. 2021년, 의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력과 도움이 필요할까요?

저 혼자 하던 일을 그나마 다른 분들이 도움을 주시게 되었지만, 아직 정확한 구상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할 때보다 혹시나 많은 분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비장애인이 시급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직접 내 작품과 내 문학을 해설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장애라고 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소외된 계층, 배려가 필요한 분들도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와 어린이, 여성 등 자기 이야기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술작품으로 보여드린다는 개념인데요. 넓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구하다보니까 장애인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동권에 있어서 좋은 장소를 빌려준다고 해도 휠체어가 못 들어간다가나 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는 우리가 쉽게 공간을 구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은 공간을 지키고,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상근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

17

지역소상공인 활동지원: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With

한국가스공사, 유준호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사회공헌부 유준호 대리입니다. 20년도에 대구 본사로 내려와 사회공헌부에서 일하게 되면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회공헌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되면서 플랫폼과의 협업을 위한 여러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시민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 상생을 위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 부에서 일하면서 플랫폼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Q.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의제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의제는 대구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기탁은 해피빈을 통해 진행하여 민간 모금을 동시 지원받고 있으며 사업 수행은 커뮤니티와 경제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플랫폼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 상품 개발·개선, 플랫폼 입점, 기획전 등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희망을 품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여 수수료가 없는 '무한상사몰',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치샵시다', '동방성장몰'에 입점 추진 중이며 추가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위메프 등 대중적인 플랫폼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약 20여 개의 상품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인터뷰

Q. 의제실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질적인 의제를 사업화하여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업 추진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에서는 기존 추진 사업들이 있기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기대효과가 뚜렷해야 의제 실행을 활성화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구체화를 위해서는 협업 기관과의 정보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ith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동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성동현이라고 합니다.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커뮤니티경제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이곳은 대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즉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기관입니다.

Q. 지역소상공인 활동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의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사업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또는 상인들을 지원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Q. 이 의제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나요?

이 의제에 대한 고민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에게 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다양한 판로 처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역을

17. 지역소상공인 활동지원: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벗어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 진출에 뜻을 가지고 희망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국가스공사와 이 의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구체적으로 의제를 고민하다가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구체적으로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까지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올 한해 구체적으로 의제와 관련하여 실행된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3군데에서 신청을 하였고 그중에 17군데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7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상품 개발과 개선 그리고 온라인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특히 온라인 시장 진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온라인 사이트에 상품을 올렸다고 해서 판매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가오는 설을 기점으로 하여 설 특판 기획전과 같은 연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지역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들과 연계해서 판매하게 되면 이 사업을 참여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W**



18

사회혁신가 성장지원

대구사회혁신가 네트워크, 이창건
대구청년센터, 노동욱
소이랩, 장종욱

대구사회혁신가 네트워크, 이창건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8년부터 2년째, 대구사회혁신가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건입니다.

Q. 사회혁신가 네트워크는 어떤 활동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혁신가 네트워크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풀기 힘든 여러 문제를 새로운 방법을 찾아 다양한 방법과 사람들과 주체들과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인데요. 서울의 희망제작소가 주최를 하고 전국의 사회혁신가들이 서로 모여서 혁신가들의 모임을 만들자고 해서 다수의 모임 끝에 2018년 8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하게 된 단체입니다.

Q. 사회혁신가 성장 지원 의제를 해결하고자 다짐했던 계기가 있을까요?

사회혁신가 네트워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혁신가들의 역량 강화, 교류와 협동, 협력 사업을 통해서 전체 사회혁신 역량을 키우려면 성장을 위한 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사회혁신가 성장 지원 의제를 실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나요?

사회혁신가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사회에서는 낯설었고, 기존에 활동하던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서부터 사회 활동들을 크게 사회혁신 활동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서 사회혁신가 네트워크의 낮은 인지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구의 많은 사회혁신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정화된 기존의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영역 간의 협력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영역 속에 매몰되거나 갇힌 현실이 있어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인터뷰

서 각자의 영역 경계를 허물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Q. 앞으로 사회혁신가 성장 지원 의제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올 한해는 코로나 사태로 기존에 하던 사회혁신 활동이 대부분 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 모두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 온택트라고 해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 경로를 찾기 위해 고심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맞닥뜨리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내부의 소통 방식도 개선하고,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 모델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정기총회를 통해서 기존의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분들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활성화하려고 방향을 잡았고요. 사회혁신가들의 공동 사업을 주로 발굴해서 개별화된 혁신가들의 통합적인 에너지 구축 사업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18. 사회혁신가 성장지원

대구청년센터, 노동욱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청년센터 활동지원팀장 노동욱입니다. 센터에서 활동지원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구요. 2019년부터 대구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제를 연구하고 제안하는 일에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청년주거, 공간에 대해 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2018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회혁신실험

실을 통해 공유공간 사업을 진행했고 2019년에는 '다운나그래'라는 청년공간을 센터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요즘 굉장히 핫한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작당하기를 좋아하구요. 항상 뭔가 재밌는 일이 없는가 고민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Q. 대구사회혁신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CSR, 대구와 각 기초단체에서 보유한 유휴공간등을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고 이걸 통해 시민들이 의제를 제안해 해결해보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Q. 의제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 하게 되셨나요?

2019년부터 청년주거관련한 의제를 계속 제안해오고 있었는데요. 소개에서 적었듯이 2017년에 근무하던 곳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고민하던 찰나에 대구 중심가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던 이사장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 공간을 같이 쉐어하기로 하면서 공유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구요. 청년주거는 청년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공부하면서 청년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구나 라고 느끼고, 2년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의제를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2011/11/11



With

소이랩, 장종욱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 소이랩의 대표 장종욱이라고 합니다. 소이랩은 당사자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 혁신모델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기업으로, 현재 대구를 포함해 논산, 대전,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리빙랩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관리자 그리고 현장에서는 문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핵심 문제를 파악하는 디자인씽킹 퍼실리테이터로서 활동 중입니다. 조직이 아닌 개인으로서는 2015년부터 대구 청년정책분야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정책제안이나 거버넌스 등 저를 포함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제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회혁신가 네트워크는 지난 2019년 설립총회 때 가입하게 되었으며 운영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활동 중입니다.

Q. 사회혁신가 네트워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까요?

사회혁신가 네트워크의 지향점이 명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호한 개념인 사회혁신과 이 분야에 몸담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네트워크 해야 하는지 아직은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사람들끼리도 논의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혁신가 네트워크에는 대구의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역량 있는 인적자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혁신가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사회혁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네트워크’라는 이름처럼 각 사회혁신 주체들과 활용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은 분야를 뛰어넘는 협업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회혁신가 네트워크가 대구의 사회혁신을 위해 훌륭한 연결고리와 기반이 될 수 있길 희망해봅니다. *W*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 인터뷰

18. 사회혁신가 성장기원



19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 대상
코로나블루 극복
심리상담 지원

토닥토닥협동조합, 이영희
한국부동산원, 나윤성



19.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 대상 코로나블루 극복 심리상담 지원

With

토닥토닥협동조합, 이영희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 발'을 돌보는 심리상담 토닥토닥 협동조합에 상담사이자 리더를 맡은 이영희입니다.

Q. 지금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같이하고 있는 의제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과 우리 토닥토닥 협동조합이 함께 삼자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여러분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Q. 협업하는 기관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행하는 건가요?

지역 안 취약계층분들 중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찾고 기관 연계를 받습니다. 현재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자활 활동을 통해서 자립하려는 취약계층분들을 개인 상담을 하고 또 개인 상담을 통해 자기의 자발적 동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진로나 취업과 관련된 상담을 병행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존감을 높이는 상담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분들을 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상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나요?

현재 세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개인 상담과 그룹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개인 상담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서로 간의 지지와 연대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룹 상담을 추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상담과 그룹 상담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블루는 뭐가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심리적인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전반적인 증상을 표현하고 있는 신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의 단절과 원활한 활동 범위의 억제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주로 발현됩니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문제나 여타 환경적인 문제로 직접적인 원인 기제가 발생하여 심리적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들 모두 코로나블루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Q.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심리상담 수요가 늘었는데요, 코로나가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코로나블루가 요즘 키워드가 되었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역민과 시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의 다른 분야들은 환자의 수가 줄어든 반면에, 정신과는 유독 몇 배가 늘어날 정도로 코로나블루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심리센터에서도 많은 분이 코로나블루 현상을 호소하며 방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담료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취약계층분들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의 미취업 청년분들의 자살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심리적으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으며, 자기 자신 또는 관계 안에서의 지지 기반을 잘 갖출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약 백 명 정도의 대상의 분들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보다는 30명 정도로 압축하여 심도 있는 다 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여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으로부터 코로나블루 현상과 관련해서 취약계층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가 우리 토닥토닥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연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리상담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러고나니 저희와 현재 연계되어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취약계층분들이 개인 상담과 밀접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자로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취약계층분들 중에서도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분들을 주 대상으로 선별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을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대상자 선별은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십이월 말 또는 일월 초부터 구체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나아갈 생각입니다.

Q. 의제에 대한 내년 기대사항이 있으신가요?

사실 심리상담이 필요하지만, 상담 수요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제도가 공공기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지속해서 이러한 제도가 이루어져 대구지역 취약계층분들이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 많은 분의 심리적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나운성

Q.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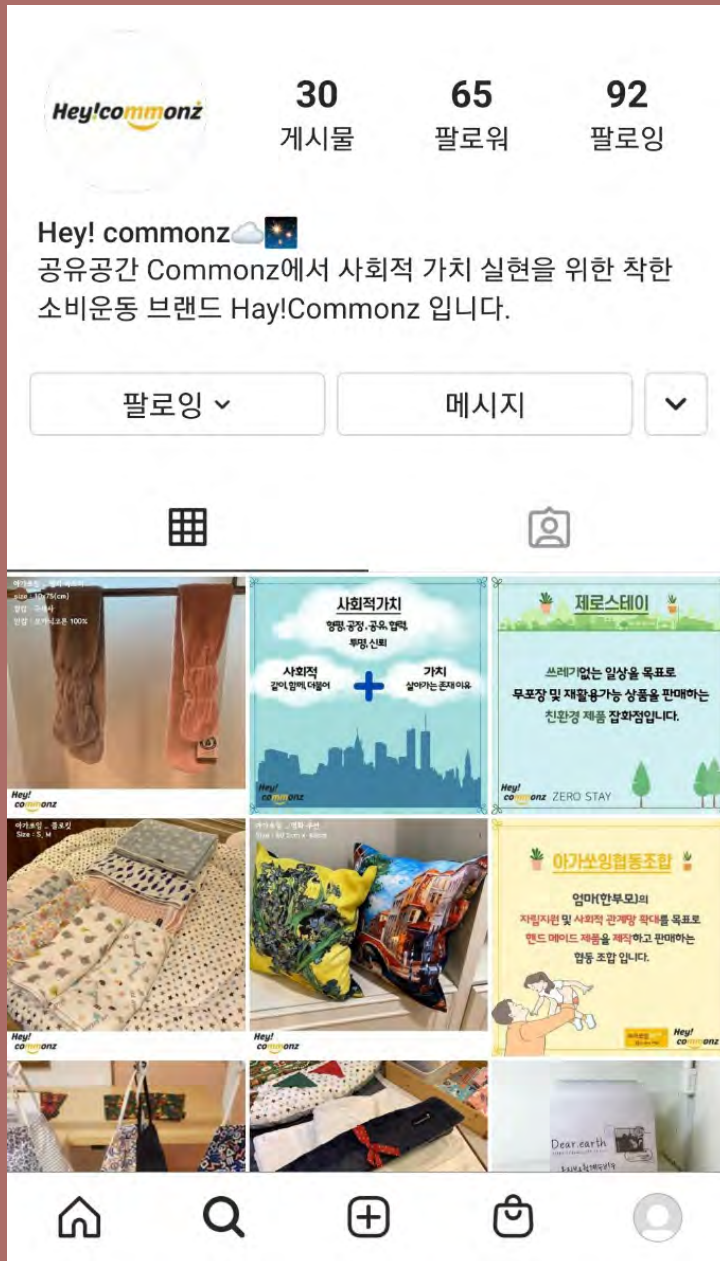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친한 친구 또는 가족 등을 직접 만나기 힘들어졌으며 일상 속에서 갑갑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빨간 글씨로 표시하며 공포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에 적응하게 되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유발된 ‘코로나블루(우울증)’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부동산원은 소외되는 지역주민들의 심신 안정과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Q. 코로나블루 의제를 해결하고자 다짐했던 계기가 있을까요?

한국부동산원은 지역의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선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는 코로나 19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부를 해 지역의 취약계층과 보육 시설 등에 방역·생활 물품 및 성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단순 물품 및 성금 지원은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상처를 위로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본 의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다짐했습니다.

Q.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블루’는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 활동이 줄어들어 따라 확산이 이루어진 심리적 우울감을 의미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보살피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과의 접촉이 적은 노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심리적으로 고립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 속 우울함 또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햇빛을 마주하는 시간을 늘리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몸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전문가가 하는 개인 및 그룹 상담을 통해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격려해주는 등 서로에게 버팀목 역할이 되어 주는 경험은 공동체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W*



20

민간 유희공간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대백프라자, 배경은
제로스테이, 진승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권준열

With

대백프라자, 배경은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백프라자 유아 존 파트에서 영업관리를 맡은 배경은 계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매장 내 브랜드의 매출관리, 브랜드의 입점과 채점 등 매장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Q. 민간유희공간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의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의제는 대백프라자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백화점에서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청년 스타트업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저희가 개척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드리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Q. 이 의제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현재 유통시장이 포화 된 상태예요.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서 차별화된 매장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하반기에 마을 기업을 매장에 입점시켰는데 마을 기업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하며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상황이라 마을 기업 이후로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Q. 올 한해 이 의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올 한해는 저희가 12월 22일이 오픈이다 보니 하반기에는 아직 큰 활동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2021년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인터뷰

172

2021년 계획은 사회적기업들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청년의 고용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실력 있는 청년 프리랜서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월데이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후에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없어지면 대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With

제로스테이, 전승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 중인 전승현입니다. 소프넷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위한 판매와 열매와 어울리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게 되었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제로웨이스트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주거 밀집 지역에 자리를 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Q. 제로스테이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대단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누구에게나 어색한 이상점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일을 곳곳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작은 일들이라 말하기 부끄럽지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민들끼리 에너지 순환을 위해 재사용되는 물건을 기부받는 일, 자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공유하는 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힘이 부디 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민간 유희공간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173

아가씨협동조합, 김경애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3년 미혼모시설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미혼모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아가씨협동조합 설립,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슬로건으로 미혼모, 한부모 가정과 서로 동반하며 사회적모성애를 확산시켜 가고 있는 마을기업 ‘아가씨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사람과 사회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 같습니다. 다 안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면 새롭고, 어색하고 배움이 부족한 학생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가진 엄마로, 아가씨협의 구성원으로, 누가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의 엄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회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우리도 엄마들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품으로 품어주는 우정과 환대의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Q. 의제를 논의해 가면서 어떤 점들이 힘들었나요?

미혼모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위한 9년간의 다양한 활동에도 자립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되면 아이를 양육하면서 잘 살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시작한 일이 배움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미혼모의 미혼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떼어내고 우리 모두의 “엄마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일이 가장 어려웠고, 우리가 만든 사회가 엄마처럼 품어 줄 수 있는 사회적모성애가 근간이 되기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새롭지 않는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인터뷰

보편타당한 문제를 의제화하고 있다는 비판부터, 엄마의 커뮤니티공간 마련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한 의구심에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일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그 힘든 점들을 견디게 해주었던 보람되거나 즐거웠던 좋은 경험들도 있었나요?

파도에 휩쓸리듯 방랑하는 모습으로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엄마들을 바라보는 것이 참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회에 탕줄 하나 없이 바다의 부표처럼 나부끼던 엄마들이 돌아온 언어들처럼 아가씨협을 다시 찾는 엄마들이 많아질 때 부족하지만 한 곳에서 변함없이 엄마 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쓰던 용품을 다른 엄마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킁킁대며 들고 오는 엄마들이 한 분 한 분 늘고 있습니다. 버릴지언정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생소했던 엄마들이 다른 엄마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무척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그만 비닐팩에 사탕과 초콜릿을 한 주먹 들고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엄마를 보며 저희 모두 몽클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 것을 하나라도 나누고자 하는 엄마들에게 “도나맘”을 명명해 드립니다. 저희 모두 도나맘으로서 경계없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꿔 봅니다.

또, 처음으로 아이 돌봄을 맡기고, 자유로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 미혼모들이 자신들도 더 나이가 들어 여유가 생기면 꼭 베이비케어 활동을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고마워할 때 힘들게 걸어온 지난 시간이었지만,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 민간 유희공간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권준열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의제실행팀을 맡고 있는 권준열입니다. 의제실행팀은 지역의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들을 의제로 공론화하여 발굴·기획·실행·제도화를 합니다.

Q. 헤이커먼즈에 입점할 사업장(아가쏘잉 협동조합, 제로스테이, 사업고용협동조합)을 선택한 기준 또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헤이커먼즈는 (사)대구시민센터와 대백프라자점이 공동기획하여 지역사회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착한 소비운동 공유공간 브랜드입니다. 이에 헤이커먼즈에 입점할 사업장의 기준은 사회적가치 실현 여부에 따라 선택하였습니다.

가령 아가쏘잉협동조합은 한부모 가정의 자립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위해 설립되어 핸드메이드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또한 제로스테이는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용품 제품을 판매하는 무포장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은 청년 예술인 프리랜서의 고용보험료 지원, 일자리 창출, 프리랜서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입니다. *W*



21

청년 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어반스캐닝, 김한필
대구도시공사, 조각래
한국부동산원, 나윤성

With

어반스캐닝, 김한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도농공간활성 관리소를 운영하는 어반스캐닝 김한필 대표입니다. 지역에 있는 공간을 기획하고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의제가 청년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인데 이 의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역에 있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공간과 그 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의제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의제에 대한 고민은 올해 여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주제, 청년창업 공간 공유커먼즈 공간을 조성해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생각해오고 꿈꿔왔던 일입니다.

Q. 올 한해 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있는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공공기관이나 여러 힘을 합칠 분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지났고 지금은 시작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터부

With

대구도시공사, 조각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도시공사 기획조정실 혁신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조각래 과장입니다. 공사의 혁신계획수립 혁신과제관리, 혁신평가, 경영평가 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활용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확인 및 조정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정부 혁신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조성도 소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관리 혹은 지원하는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와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의 활성화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이러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우리 공사에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민센터,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인비둘기아파트 상가 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 상반기 중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창업활동, 청년에 술가협동조합 지원,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 공간을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21. 청년 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With

한국부동산원, 나운성

Q. 한국부동산원에서 의제 실행에 결합하시게 된 배경(계기)과 연계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유휴 지하 공간 리모델링 및 공간조성을 위한 초기 비용(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부동산과 주거공간에 대한 통계 및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정책 지원을 시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역할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또한 지역 청년들이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문화 활동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의 장을 만드는 의제입니다. 공유 문화나 공동체 의식이 줄어든 요즘, 유휴 공간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간의 의미에 대해 재차 생각해보고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가 생기면 지역 주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소통의 창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격려하고자 의제 실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의제 실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기도 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프리랜서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의제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계발의 장이 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제 실행을 통해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W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With* 인터뷰

21. 청년 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Wish*터뷰,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발행일

2021년 3월 24일

발행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기획·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디자인

스튜디오 플로트(안지경)

주최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주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인터뷰로 만난 사람들>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 방식 모색:
온라인 협업테이블
강은경 | 손정아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회협약
김은영 | 강경민 | 박서현 | 전승현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안진나

안전사고 예방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축시설물 개선
박진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유희 공간 활용 장애인 문학관 건립
이종일

지역소상공인 활동지원: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유준호 | 성동현

사회혁신가 성장지원
이창건 | 노동욱 | 장종욱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 대상 코로나블루 극복 심리상담 지원
이영희 | 나윤성

민간 유희공간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배경은 | 전승현 | 김경애 | 권준열

청년 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김한필 | 조각래 | 나윤성

With 터뷰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요.

여는 글 '혁신가의 삶'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크고 작은 성과들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구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갖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는 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에서

<인터뷰로 만난 사람들>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 방식 모색:
온라인 협업테이블
강은경 | 손정아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회협약
김은영 | 강경민 | 박서현 | 전승현

북성로 유네스코 등재
안진나

안전사고 예방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축시설물 개선
박진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유희 공간 활용 장애인 문학관 건립
이종일

지역소상공인 활동지원: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유준호 | 성동현

사회혁신가 성장지원
이창진 | 노동욱 | 장종욱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 대상 코로나블루 극복 심리상담 지원
이영희 | 나윤성

민간 유희공간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배경은 | 전승현 | 김경애 | 권준열

청년 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김한필 | 조각래 | 나윤성

With터뷰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도.

여는 글 '혁신가의 삶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크고 작은 성과들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구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갖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는 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에서'

With터뷰 |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With터뷰

2020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인터뷰로 만난 사람들>

무장애플랫폼
공정욱 | 김수용 | 이승욱 | 이은자 | 임수혁

친환경차량
김수용 | 유준호 | 육성완

청년주거
조각래 | 김요한 | 조영태

햇빛발전 지역자산화
이형배 | 오용석

사회적모성애
김경애 | 신영철 | 한가영

미세먼지
김은영 | 김한민 | 채수현

사회진입기 청년들의 프로필 사진 지원: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이진욱 | 정승이 | 최범순

마을방송국 확산: 재난시기, 이웃을 잇는 마을방송 인프라 구축
김영숙 | 권현준 | 김상현 | 김은아

도시근교형 깎이어 프로젝트: 청년 진로탐색 활동 지원 및 도농상생
김종명 | 서삼열 | 안지혜 | 정예림

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학교 밖 청소년 진로탐색지원
강근모 | 김상운 | 김도한 | 원동윤

재난이후 사회적 고용: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김미지 | 이성환 | 방지민 | 권준열

